

조경수목 산책 44

박태기나무(1)



임경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농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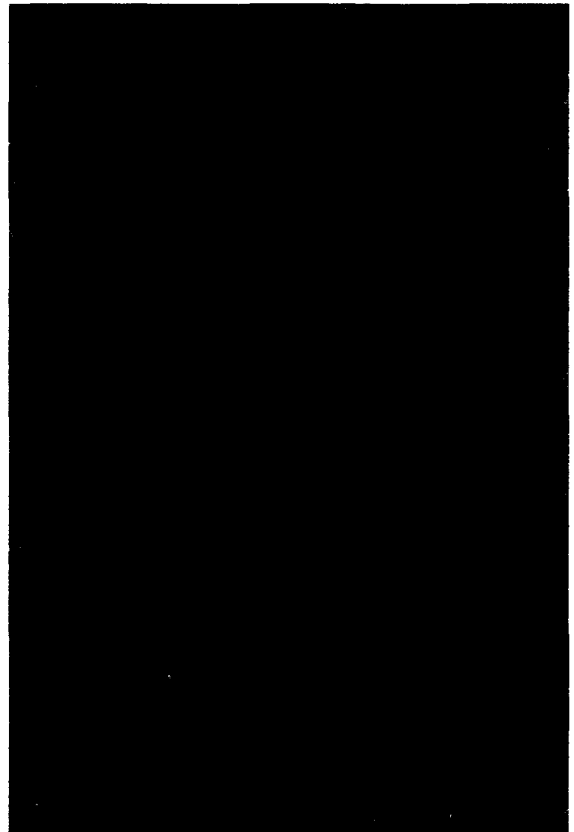


1. 박태기나무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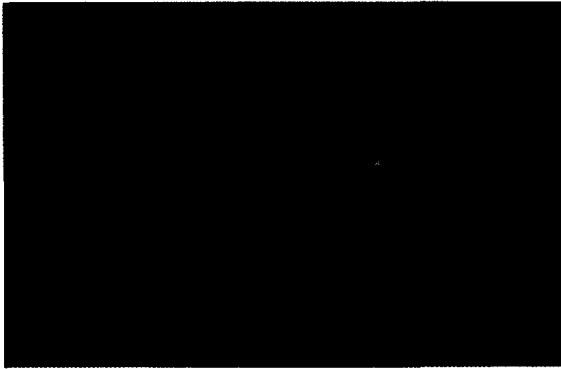
꽃은 그것이 풀꽃이든 나무 꽃이든 또 그것이 농염 하든 또는 숨어서 지내는 소박함이 있든 모름지기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하는 부드러움과 순수한 평화와 사랑의 상징으로 차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큼직한 연꽃이든 목련꽃이든 작게는 논두렁에 자리잡아 조알같이 작은 꽃을 다는 담배풀꽃이나 나생이꽃 또는 잔디꽃도 인간의 눈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속에 존재하는 미의 공간을 무한한 것으로 확대해서 그 안에서 거닐어보는 꽃 철학을 키워보았다.

이 나무는 중국이 원산지이고 비교적 오래 전에 우리나라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콩과에 속하는 낙엽관목으로 나무답지는 않으나 어릴 때부터 손질을 해서 나무의 골격을 다듬어 주면 나뭇대로의 보고싶은 수형으로 정돈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곳곳에 심어지고 있는 박태기나무는 거의 이러한 손질을 받지 못하고 울타리용으로 줄로 심어지고 있다.

봄에 피는 박태기나무의 붉은 꽃은 작은 것들이 다닥다닥 모여 붙어서 나무전체가 꽃줄기와 꽃가지로 되어 그 표면 전부를 덮기 때문에 줄기나 가지는 꽃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보리밥쌀 만한 것들이 무더기로 달려서 우리를 신기의 세계로 몰아 넣는다. 꽃 색은 보라와 붉음의 물감을 잘 안배한 상태이고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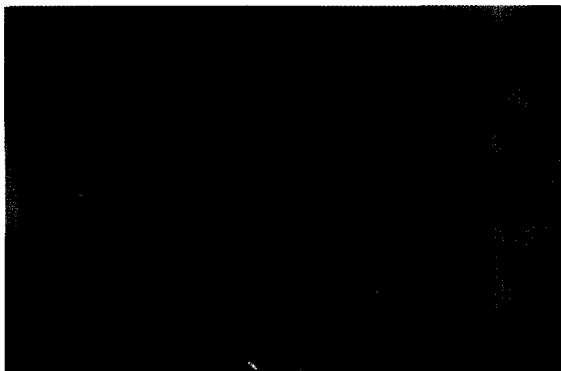
▲ 화사하게 꽃을 단 박태기(1993. 5, 수원농대)



▲ 무상처(無常處)(1998. 9, 수원)



▲ 만조홍(滿條紅)(1976. 5, 수원농대)



▲ 미화목(米花木)(1989. 4)



▲ 박태기나무의 잎(1988.10, 금산사)

이 지면 잎이 돌아난다.

이 나무에 대한 한자명칭은 정태현 박사의 도감(新志社, 1956)에 보면 소방목(蘇方木), 자형목(紫荊木), 만조홍(滿條紅)을 들고 있다. 정태현박사는 이 세 가지 한자명을 들고 있으나 그 이외에도 많은 한자명이 있다. 자형목이 박태기나무의 한자명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만조홍(滿條紅)이라는 한자명에는 박태기나무의 꽃가지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이름이 아니가 한다. 만조홍이란 가지 가지마다 꽃이 가득히 달려있다는 것이고 그 꽃 색깔이 또 붉음이라는 것을 뜻해서 박태기나무의 꽃핀 때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방목이란 이름도 심심찮게 박태기나무의 한자명으로 나오고 있다.

삼재도회(三才圖會)에 보면 소방목(蘇芳木)과 자형(紫荊)은 엄연히 다른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 나무가 우리나라의 나무가 아니고 원래 중국에서 자라던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생각하면 삼재도회의 설명은 더욱 올바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삼재도회에 보면 박태기나무의 한자명을 자형(紫荊)으로 말했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자주(紫珠)로 쓰고 있다.

이 나무의 껍질을 육홍(肉紅)으로 말한다는 것은 이 나무 줄기 안에 붉은 색깔의 소질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속되게 자형을 소방목(蘇芳木)이라고도 했으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형과 소방목의 구별을 뚜렷하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다.

본초강목(本草綱目)에 자형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곳에 보면 자형은 곳곳에서 자라고 있고 사람들은 이것을 흔히 뜰에 심고있다고 했다. 잎은 광택이 있는 깨끗한 색이며 그 잎의 모양은 둥글고 거치는 없다. 봄에 보라색의 꽃을 피운다. 그 꽃은 많이 물러서 달리고 가늘게 깨어져서 수술같이 보이기도 한다. 꽃은 달리는 곳이 정해져있지 않고 때로는 나무줄기에 꽃이 나타나다가 하면 때로는 뿌리에도 꽃이 달린다. 가지의 겨드

량도 나며 나무줄기는 물론 많은 꽃이 달린다. 이러한 기술을 통하여서 우리는 박태기나무의 특성을 살펴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박태기나무는 꽃이 달리는 정해진 장소가 없다. 거의 모든 나무는 꽃을 달 때 그 꽃이 달리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꽃차례(花序, 화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말하자면 박태기나무는 꽃을 피울 때 그 위치에 있어서 자유분방한 태도를 취한다. 차례에 얽매어 있지 않다. 마음내키는 대로이다. 구애받을 이 없다.

그런가하면 소방목(蘇芳木)의 설명을 본초강목에서 찾아보면 남쪽바다에 섬이 있는데 그 섬 이름이 소방국(蘇芳國)이고 그곳에 이 나무가 자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기록을 통해서 보면 이 나무는 다분히 열대산의 수종으로 말할 수 있고 꽃색이 노랑이라고 하니 박태기나무의 그것과는 차이가 크다. 그래서 북방수종의 박태기나무에 소방목이란 한자명이 붙은 것은 그 연유를 알 수가 없으나 상고하는데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일본사람들은 박태기나무를 「하나스호」로 말을 한다. 하나스호는 화소방(花蘇芳)을 일본말로 음독한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화소방이란 이름이 붙고 일본사람들도 그것을 하나스호로 말하고 있는지 그 연유는 잘 알 수가 없다.

한문이름으로 미화목(米花木)이 있는데 이것은 쌀알 같은 꽃이 달린다는 뜻이다. 박태기나무라는 우리나라 이름도 이 미화목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다.

2 박태기나무의 생물학

나는 시골에서 자랐다. 박태기나무가 중국에서부터 들어온 것이라 하지만 그 거리가 멀어서인지 아니면 때가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우리고향에는 박태기나무가 없었다. 지금의 초등학교, 당시의 보통학교가 있는 큰 마을에도 박태기나무는 없었다. 나는 그 뒤 대구농림학교로 진학했는데 대구에서도 박태기나무를 본 기억은 없다. 농림학교에는 부속수목원이 있었지만 그 수목원에도 박태기나무는 없었다. 박태기나무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은 거의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만큼 이 나무가 많이 심어지고 있지만 나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 지난날에는 박태기나무가 그리 흔하지 않았

다고 생각한다.

박태기나무에 대해서는 그 생물학적인 성상을 이미 앞에서 어느 정도 언급한 바 있다. 내가 박태기나무를 가장 많이 본 곳은 경기도 수원이다. 지금도 경기도 수원지방에는 이 나무가 다른 곳에 비해서 더 많이 심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나무는 낙엽관목이고 높이가 5m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산지 중국에 있어서는 이 나무가 교목형으로 자란다고 하며 미국에 있어서는 수고가 15m에 이른 것이 있다고 하니 교목이라고 말할만한다.

잎은 어긋나고 긴 잎자루가 있으며 그 질이 약간 두텁다. 엽맥은 잎의 아래쪽에서 다섯 개로 크게 갈라진다. 봄 일찍이 자홍색(紫紅色)의 꽃을 다는데 모여서 화사하고 풍성한 그 아름다움을 보인다. 말했지만 중국 북쪽 중부에 나는 나무로서 그 나라에 있어서는 천수백년 전부터 이 나무를 정원수로 이용했다고 한다.

이 나무가 우리나라나 일본에 건너온 것도 꽤 오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이노제로 사용한 기록이 있다. 이 나무는 적응력이 강해서 어느 곳에 있어서나 어떤 땅에 있어서나 왕성한 자람을 보인다. 종자에서 싹튼 묘목은 약 3년이 되면 꽃이 피기 시작한다.

꽃에는 독이 있는 까닭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꽃피는 장소가 정해져있지 않는 까닭에 삼재도회에 보면 상처(常處)가없다고 했다. 이러한 표현은 박태기나무의 꽃 생리와 꽃 생태를 적절하게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다. 박태기나무에는 꽃이 피는 상처 즉 정해진 곳이 없단 말이다. 무소부재(無所不在)란 말인데 심오한 철학의 대목 같기도 하다. **조경수**

